축 처진 덕아웃은 가라…에너자이저 김태진이 떴다

지난 7월 NC서 KIA 이적 후 7경기 타율 0.333
훈련·경기 도중 파이팅 넘치며 분위기 주도
부상 없는 시즌 완주 목표…"5강 돕는 게 내 임무"

"부상 없이 김태진의 에너지를 보여주겠습니다."

KIA 타이거즈의 내야가 시끄러워졌다. 파이팅 넘치는 김태진이 '호랑이 군단'의 새 식구로 완벽하게 적응, 부상 고민에 빠져 있는 3루에서 자리를 넓혀가고 있다.

김태진은 NC 소속이었던 지난 7월 9일 SK전에서 도루를 시도하다가 오른쪽 발목 인대 부상을 당했다. 재활 도중 문경찬, 박정수와의 트레이드로 장현식과 KIA로 이적한 그는 지난 9월 5일 마침내 이적 신고식에 나섰다.

16일 경기 전까지 이적 후 7경기에 나선 김태진은 27타수 9안타, 0.333의 타율로 성공적으로 새 팀에 안착했다.

김태진은 "새 팀에서 잘 지내고 있다. 좋다. 선배님들, (박)찬호, 코치님들 편안하게 해주셔서 빨리 적응했다"고 말했다.

박찬호는 청소년 대표 시절을 함께 한 인연이 있다.

트레이드 당시 KIA가 김태진에게 기대한 부분은 바로 '에너지'다. 경기는 물론 훈련할 때도 김태진은 고함을 지르며 경기장 분위기를 띄운다.

김태진은 "야구장에서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습관이 되어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다"며 "파이팅하면서 열심히 하는 게 내 매력이다"고 웃었다.

타석과 그라운드에서 공격적인 모습이 김태진의 또 다른 장점이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다듬어 가고 있다.

김태진은 "공격적으로 뛰는 게 많아서 이제는 조금 생각 있는 플레이를 해야 할 것 같다. 상황과 타이밍에 맞춰 한 베이스씩 더 가려하기도 하고, 방어적일 때는 보수적인 플레이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타석에서도 '자신만의 존'으로 세밀함과 여유를 더하고 있다.

김태진은 "공격적으로 대처하다 보면 다음 타석 생각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서도 "타격은 여기저기 다 치다보니까 스트라이크 존을 그려서 하려고 한다. 코치님들도 '컨택이 좋으니까 너무 급하게 좋지 않은 볼에 배트를 내지 말라'고 하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 앞서 우선 생각하는 것은 '부상'이다.

지난해 123경기에 나와 최고의 시즌을 보냈던 김태진은 올 시즌에도 의욕이 앞섰다. 하지만 앞선 부상으로 두 달가량 그라운드를 떠나있어야 했다.

김태진은 "100% 복귀한다 생각하고 서두르지 않고 준비를 했다. 컨디션이 100% 되어야 게임을 순조롭게 할 수 있으니까 재활을 착실하게 했다"며 "빨리 시합 뛰고 싶었지만 완벽하게 낫지 않고 하면 재발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차분하게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야구하면서 제일 크게 다쳤다. 항상 경기 나가면 다치지 말자는 생각을 한다. 경기전 국민의례에서 오늘 하루도 다치지 말자는 생각을 한다"며 "많이 보여드리고 싶기만 재활 기간이 길어서 급하게 무리하게 하다 보면 또 다치기도 하니까 부상을 염두에 두면서 플레이 하고 있다. 너무 보여주려다가 부상이 올 수도 있으니까 하던 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부상 없이 주어진 역할을 하는 게 남은 시즌 김태진의 바람이다.

김태진은 "순위 싸움에서 팀이 올라서도록 하는 게 내 임무인 것 같다. 내가 조금만 하면 팀은 저절로 잘 될 것 같다. 잘하는 선배님들, 후배, 친구 있기 때문에 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지난 5일 한화와의 경기를 통해 KIA 선수로 신고식을 치른 김태진이 이적 후 첫 안타를 기록한 뒤 덕아웃에서 동료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KBO 신인드래프트 '언택트 지명'

21일 국내 프로스포츠 최초
KIA, 네번째 순서로 호명
김기태 전 감독 아들 김건형 관심

코로나19로 KBO 신인드래프트가 처음으로 '언택트 지명 시스템'으로 진행된다.

2021년 신인 선수들을 선발하는 KBO 신인드래프트가 21일 오후 2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다.

코로나19로 국내 프로스포츠 최초로 행사장과 각 구단 회의실을 화상 연결하는 언택트 방식으로 드래프트가 진행된다.

드래프트장에는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소수의 구단 관계자만 참석한다. 지명 대상 선수 및 가족들도 '언택트'로 행사에 참여하게 된다. 미디어의 현장 취재와 야구팬들의 관람도 이뤄지지 않는다.

드래프트는 1라운드부터 10라운드까지 진행된다. 구단당 라운드별로 1명씩, 총 10명을 선발하게 된다.

2019년 팀 순위 역순에 따라 지명이 이뤄지면서 롯데-한화-삼성-KIA-KT-NC-LG-SK-키움-두산 순으로 신인 선수를 호명하게 된다.

행사는 케이블 스포츠 채널 MBC SPORTS+와 유무선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wavve, Seezn, U+프로야구를 통해서 생중계된다.

또 실시간으로 KBO 홈페이지를 통해 지명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신인 드래프트 대상자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856명, 대학교 졸업 예정자 269명, 해외 아마 및 프로 출신 등 기타 선수 8명 등 총 1133명이다. 김기태 전 KIA 감독의 아들 김건형과 거포 심정수 아들 심종원도 해외파 트라이아웃에 참가, KBO리그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파이널A 진출 코앞에서… 광주, 또 VAR 참사

상주전 후반 45분 상주 정재희 골 핸들링 논란 속 0-1 패
비디오 판독 원심 유지…박진섭 감독, 항의하다 경고카드
VAR 논란만 세번째…축구연맹, 오늘 평가소위서 공식 입장

광주FC가 다시 한번 '비디오 판독' 논란의 주인공이 됐다.

광주는 지난 15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상주상무를 상대로 2020 K리그1 21라운드 홈경기를 치렀다.

앞서 1위 울산현대, 2위 전북현대를 상대로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7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달린 광주는 이날도 '3위' 상주와 팽팽한 힘겨루기를 했다.

상대의 거친 플레이 속 임민혁이 전반 38분 일찍 교체되는 등 부상 변수에도 광주는 8경기 연속 무패를 눈앞에 두고 있었다.

하지만 후반 45분 상주 정재희가 이근호의 패스를 받아 오른발로 광주 골대를 가르면서 경기장이 소란스러워졌다.

바로 앞에서 상황을 지켜본 광주 선수들은 바로 '핸드볼 반칙'을 언급했다.

골 상황에 앞서 문선민이 정재희를 향해 띄운 공이 키를 넘어 뒤에 있던 이근호에게 향했다. 문제는 이근호가 공을 받는 장면에서 나왔다. 바운드된 공이 가슴 부위로 향한 뒤 팔을 맞고 방향을 틀어 오른쪽에 떨어졌다. 하지만 심판진의 판정은 골이었다.

비디오 판독 센터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정을 했고, 채상협 주심도 "핸드볼 반칙이 아니다"는 콜에 따로 모니터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골을 선언했다.

온 필드 리뷰(on-field review)에 대한 애타는 목소리 속 박진섭 감독도 어필을 하다가 경고카드를 받았다.

후반 추가 시간 3분에 광주는 끝내 만회골을 넣지 못하면서 허탈한 패배를 기록해야 했다.

광주 FC 박진섭 감독

스플릿라운드에 앞서 두 경기가 남은 상황, 6위부터 10위까지 3점 차 접전을 벌이고 있던 만큼 '승점' 가치는 컸다.

심판진은 판정 상황에 대한 문의에 경기 감독관을 통해 "코멘트할 상황은 아니다. 문제가 없다. 핸드볼이 아니다.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모니터를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문제가 없었다는 심판진의 이야기와 달리 K리그 팬들은 '명백한 오심'이라며 무용지물이 된 비디오 반독(VAR)을 비난했다.

광주에는 되살아난 VAR 악몽이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2017년 '공정하고 신뢰받는 리그'를 외치며 예정보다 앞당겨 VAR 시스템을 도입했다. '광주전 오심'이 그 배경이 됐다.

3라운드 서울 원정에서 광주는 전반 5분 나온 조주영의 선제골로 경기를 압도하고도 1-2로 졌다.

후반 16분 나온 오심이 결과를 바꿨다. 서울 이상호의 크로스가 광주 수비수 박동진의 옆구리에 맞았지만, 주심은 팔에 공이 맞았다며 페널티킥을 선언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광주는 역전패를 당했다. 억울함에 눈물까지 보였던 박동진은 항의를 하다가 경고 카드도 받았다.

경기가 끝난 뒤 당시 광주를 이끌고 있던 기영옥 단장의 '작심발언'도 나왔다. 앞선 시즌에도 결정적인 페널티킥 오심에 6강 꿈을 놓치는 등 계속된 광주전 오심에 기영옥 단장이 불이익을 감수하고서 취재진 앞에 섰다.

이후 연맹이 오심을 인정해 부심 퇴출, 주심 무기한 경기 배정 징계를 내렸지만 기영옥 단장은 10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물론 사라진 광주의 승점은 찾을 수 없었다.

논란이 뜨겁게 전개되면서 연맹은 서둘러 VAR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이해 가을 광주는 다시 한번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인천과의 28라운드 원정경기에서 광주는 0-0 무승부를 기록했다. 승점 3점을 보탤 수 있었지만 이번에도 '핸드볼 파울'이 발목을 잡았다.

후반 39분 본즈의 결정적인 슈팅이 인천 수비수가 뻗은 손에 맞아 골대를 벗어났다. 광주 선수들이 핸드볼을 어필했지만, 비디오 판독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연맹이 '공정성'을 이야기하며 자랑하던 VAR 시스템을 무용지물로 만든 경기. 이후 연맹의 태도도 논란이 됐다.

오심에 대해 부인도 시인도 하지 않았던 연맹은 조용히 해당 경기 주심과 비디오판독 심판에 대한 징계 조치를 내려 비난을 샀다.

절치부심 다시 1부리그로 돌아온 광주는 다시 한번 VAR과 핸드볼 반칙이라는 악몽을 마주하며 울분을 삼켰다.

한편 연맹은 17일 평가소위원회를 거쳐 공식 입장을 낼 방침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STL 가을야구 3선발은 김광현"

세인트루이스 지역 라디오 101 ESPN "톱3 투수 의심할 여지 없어"

김광현(32·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사진)의 연이은 호투에 현지 지역 매체도 감탄했다.

이제 김광현은 포스트시즌(PS) 3선발 후보로 거론된다.

세인트루이스 지역 소식을 전하는 라디오 101 ESPN은 16일(한국시간) 김광현을 세인트루이스 와일드카드 시리즈 3선발로 꼽았다.

101 ESPN은 "세인트루이스가 포스트시즌에 진출할 확률은 78%다. (3전 2승제의)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잭 플래허티와 애덤 웨인라이트가 팀의 1, 2선발로 등판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라며 "그렇다면 누가 3선발로 나서야 할까"라고 화두를 던졌다.

3선발 후보는 다코타 허드슨과 카를로스 마르티네스, 김광현이다.

이 매체의 결론은 김광현이었다.

101 ESPN은 "김광현은 7월 25일 개막 당시에는 선발진에 진입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 김광현은 메이저리그에서도 상대를 압도하는 선발투수라는 걸 증명해나가고 있다"며 "현재 김광현이 카디널스의 톱3 선발 투수라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포스트시즌 3선발 추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김광현은 6경기에 등판해 2승 평균자책점 0.63의 놀라운 성적을 내고 있다. 선발로 등판한 5경기 평균자책점은 0.33이다.

101 ESPN은 "김광현은 선발로 등판한 5경기에서 27⅔이닝을 소화하는 동안 자책점을 1개만 내줬다. 김광현은 내셔널리그 역사상 최초로 4경기 연속 '5이닝 이상·3안타 이하·비자책점 투수'를 이어가고 있다"며 김광현의 최근 활약을 소개하기도 했다.

101 ESPN은 기사 말미에 재차 "포스트시즌 첫 라운드(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김광현이 공을 던지는 걸 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